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날짜 : 4월 12일
*찬송 : 438장 (1절, 2절)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10: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율법교사의 약점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떨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생각하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흔히 사람들은 내 몸을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생각하기)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적은 없었는가?

▶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막힌 줄 알았던 길이, 실은 더 깊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생각하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적이 있었다면, 서로의 경험을 나눠보자.

▶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때가 있었다. 실직이나 낙방,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일대로 꼬여서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을 상실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다. 그때 제사장 처럼 여겼던 사람이 나를 못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 같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오신다.

(생각하기) 강도 만난 자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나를 못본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찬송: 438장 (3절)

*합심기도

1.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2.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3.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루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4. 5월 10일 위임 및 임직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기도

(작성: 이성실)